



F.B.I EXECUTIVE REPORT

ON GLOBAL BUSINESS AND ECONOMY



Hanyang Univ. School of Business

FOREIGN BUSINESS INTELLIGENCE



Contents July 17, 2013

Biweekly Report

- 2** Crackdown on Morsi Backers Deepens Divide in Egypt
오치훈, from The New York Times
- 5** Can India Replace China as a Manufacturing Hub?
김현진, from Bloomberg Businessweek
- 8** China Second Quarter GDP to Test Reformer's Stomach for Weaker Growth
김태민, from Reuters
- 11** Back to School Sales Already? Kids Get Ugly Reminder School Isn't Too Far off
윤민석, from TIME
- 14** Apple's Price-Fixing Guilt Won't Change the E-Book Market
전경령, from Bloomberg Businessweek

Special Report

- 17** 2 Central Banks Promise to Keep Rates Low
유안규, from The New York Times
- 20** All Nations Collect Intelligence, Obama Says
김진수, from CNN

Crackdown on Morsi Backers Deepens Divide in Egypt

* 기사출처: [The New York Times \(2013.07.04\)](#)

* 요약자: 오치훈 (resuntry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이집트, 쿠데타

“이집트 내 새로운 과도정부의 출현과 사회적 분열”

□ 이집트에서는 지난해 선거로 선출된 첫 대통령 무르시가 실각하였으며 오랜 독재정권의 유산들이 다시 나타나고 있음

- 이집트 시민혁명으로 무바라크가 물러난 뒤 처음으로 국민투표를 통해 선출된 이슬람교 대통령 무르시는, 선출된 지 약 1년 만에 이집트 군부 세력에 의해 실각
- 무르시에 반대하여 사임했던 이전 외무부 장관 아므르(Mohamed Kamel Amr)는 직위로 복귀함
 - 그는 무르시 대통령 이전부터 계속 관직을 맡아왔으나 무르시의 마지막 임기 중에 사임하였고 이는 무르시에게 정치적 타격을 줌
- 또한 무바라크가 지명했던 전 검찰총장 마흐무드(Abdel Meguid Mahmoud)는 무르시가 지명한 현재 검찰총장을 밀어내고 그의 직위로 복귀함

□ 이러한 조짐들은 무르시 내각의 실각 이후 이집트의 새로운 정치체제가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지를 암시함

- 일각에서는 힘으로 이룬 권력의 이동이 이집트 사회의 분열을 더욱 촉진 시킬 것이라고 예상함
 - 그 분열은 무르시와 무슬림형제단을 옹호하는 지지자들과 세속주의자, 기독교인 중심의 무바라크 시대 권력인사들의 지지자들 사이의 갈등을 의미함
- 한편, 잘 알려지지 않은 헌법재판소의 수석 재판관 만수르(Mansour)가 과도정부의 임시 지도자로 등장
 - 그는 국민의 진정한 의지를 보여주는 선거를 기대하고 있으며 이번 군사적 개입은 이집트를 영광스런 혁명의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주장함

무슬림형제단

아랍권의 가장 영향력 있고 규모가 큰 이슬람 단체로, 1928 년 이집트의 하산 알반나에 의해 설립된 범이슬람주의, 종교, 정치, 사회 단체이다

출처: 위키피디아


- 무르시의 실각 이후 정치적 기반인 무슬림형제단을 억압하기 위해 시행된 과도정부의 조치들은 이슬람교도들의 분노와 이집트 내의 사회적 분열을 야기
 - 새로운 임시 대통령 만수르는 취임식에서 이슬람교도들에게 화해의 메시지를 보냈으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함
 - 이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검찰은 최소 200명의 이슬람교인들에게 영장을 발부함
 - 무슬림형제단은 국가적 통합을 내세우는 새로운 과도정부를 정면으로 반박하며 전국적인 시위를 촉구함
- 과도정부의 구성원들은 이번 사건이 그 동안 길을 잃었던 이집트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'혁명'이라고 주장함

- 이집트의 군부는 무르시가 임기동안 권력을 남용하고 경제를 돌보지 않았으며 사회적 갈등을 일으켰다고 주장함
- 외무부 장관 아므르는 외국 뉴스매체들과 일련의 회의를 열어 이집트가 군사적 쿠데타를 겪고 있다는 주장을 반박함
 - 또한 그는 외국의 외무부장관들에게 이번 사건에 관한 자신의 긍정적인 생각을 밝힘

□ **반면 무슬림형제단은 이번 쿠데타에 대해, 투표로 선출된 대통령과 국민의 자유의지에 반하는 행위라고 비난함**

- 무슬림형제단의 대변인은 이번 사건이 경찰국가의 후퇴라고 주장함
- 또한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무자비한 체포는 수십년간 무바라크 독재정권 아래 활동하던 금지된 조직을 회상하게 한다고 언급함
- 이슬람 일각에서는 최근 치안 공백문제와 같은 이집트 내부분제들은 대중의 불만을 키우기 위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이라는 음모론을 제기함

□ **새롭게 나타나고 있는 이집트 정계의 미래는 불투명하며 실각한 무르시의 지지자들을 향한 탄압은 이집트 사회분열을 악화시킴**

- 과도정부의 보안기관 대변인 바젯(Fahmy Bahgat)은 무르시를 지지하는 행동을 보이는 이는 극단의 조치를 받을 것이라고 위협함
- 어떠한 세력이 어떠한 절차를 걸쳐 집권하든 이집트의 정국은 불안할 것으로 예상됨 

Can India Replace China as a Manufacturing Hub?

* 기사출처: [Bloomberg Businessweek \(2013.07.12\)](#)

* 요약자: 김현진 (guswls206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인도, 세계 공업 중심지

“공업 중심지로서 중국을 대체할 인도의 가능성과 현실적 난관”



□ 서양 기업들은 현재의 세계 공업 중심지인 중국을 벗어나 새로운 대안 국가를 모색 중이며, 인도가 유력한 대안으로 부상 중

- 중국의 현지 임금은 상승하고 노동시장은 긴축하고 있어 저렴한 노동자들의 대량 공급이 필요한 진출 기업들의 운영이 어려워짐
- 이 때문에 일부 기업들은 인도와 동남아시아 같은 새로운 지역을 새로운 대안으로 선택하고 있음

□ 하지만 서양 기업들이 중국에서 인도로 산업의 중심을 옮기기에는 아직 많은 제한요소가 존재

- 인도는 기본적인 기반 시설도 갖추지 못한 곳이 많으며 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노동법으로 악명이 높음
- 소프트웨어 서비스나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산업에서는 경쟁력이 있지만 제조업은 불모지에 가까움

□ 한편 인도 정부는 인도에 대한 부정적인 대외적 인식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음

- 인도는 델리와 뭄바이 사이에 '산업 회랑 지대'를 지어 기업들을 유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음
- 또한 인도는 일본 정부와 함께 일곱 개의 신 산업 도시 건설을 구상하고 있음
 - 이 프로그램은 최신식 시설, 안정된 상수도, 고성능 운송 시스템, 물류 시설과 같은 기반 시설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


□ 나아가 인도 정부는 인도의 시장 가능성을 가늠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세계 공업 중심지로서의 가능성을 확신시키려고 함

- 인도가 중국의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대안 국가라는 점을 강조
- 인도의 통신사 PTI는 정부가 인도를 세계 공업 중심지로 만들기 위해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발표

□ 이러한 인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공업 국가를 모색하는 미국 기업들은 여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

- 인도의 계획이 외국기업을 희생양으로 삼아 현지의 제조 기반을 증진하려 한다고 의심받고 있음
- 미국 고위 공화당원들은 인도가 여전히 불공정 무역관행을 보이고 있으며 보호주의적인 국가라고 주장
- 미국 상원의원들은 인도 정부가 미국의 혁신적인 제품을 차단하고 미국의 지적 재산을 국내 산업에 이전하는 정책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함
 - 특히 IT, 전기 통신, 클린테크 산업의 정책들에 초점을 맞춤

□ 이러한 미국의 불신은 인도 정부 정책에 직접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음

- 인도의 전자, IT 부서는 올해 8월 초 내로 이전의 정책을 수정할 계획
- 인도 정부는 국내 생산 전자 제품을 선호하는 시장 특혜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발표
- 미국-인도 경영 협의회는 인도가 생산 판매국 정책과 외국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반가운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여김 

China Second Quarter GDP to Test Reformer's Stomach for Weaker Growth

* 기사출처: [Reuters \(2013.07.07\)](#)

* 요약자: 김태민 (ktdd440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중국, 경기둔화

“경제 성장둔화라는 위기에 봉착한 중국의 새 지도부”

-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로이터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올해 2사분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7.5%
 - 이것은 전 세계적인 기준으로는 높은 편에 속하나, 중국으로서는 23년 만에 가장 낮은 성장률
 - 시장 전반의 수요 부진이 산업 생산량과 투자 수준을 약화시켜 지난 1사분기의 7.7%보다 성장이 둔화
- 시진핑 국가주석과 리커창 총리로 대표되는 중국의 새 지도부는 지난 30여 년간의 중국의 급진적인 경제 성장에 제동을 걸 필요가 있다고 판단
 - 오늘날 경제 성장의 방향은 정부의 정책적 수단보다 소비자 주도의 성장 중심으로 변화
 - 대규모 부채 조달을 위한 과도한 투자에 의존하지 않고, 느리지만 양질의 성장을 선택
- 그러나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면서 중국 정부의 결단이 비판의 대상이 됨
 - 한 경제 전문가는 중국이 개혁을 고수함에 따라 경기 하강 압력은 계속될 것이며, 실업률과 불량대출의 증가도 불가피할 것이라

고 지적

- 지난 6월의 유레 없는 통화시장 파동이 높은 대출 금리의 형태로 실물 경제에 반영된다면 올해 남은 기간의 성장 전망은 암울한 수준이 될 것
- 높아진 금리로 차입비용에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일자리를 축소함으로써 경제 정책의 중요 요소인 실업률이 증가할 수 있음


□ **특히 노동시장의 침체는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이 극복해야 할 큰 과제**

- 중국의 최대규모 민영 선박회사인 룡성(Rongsheng) 중공업은 최근 8,000여 명의 인력을 감축
- 노동시장 조사에 따른 정부의 여러 하부지수는 지난 6월까지 고용이 1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냄

□ **제조업의 성장이 부진하고 무역이 둔화되는 현상은 성장동력이 약화된 중국의 경제의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줌**

- 지난 수년 간 태양광 산업, 조선업, 제철업 등의 중국 산업계는 빈약한 수요와 과도한 생산능력 사이의 부조화로 고통을 겪음
 - 생산비에 기업 이윤이 합쳐진 생산자가격이 5월에 2.9%, 6월에 2.7% 떨어지는 등 16개월 연속 하락
- 무역량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지만, 이는 확실한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미미한 반등에 불과
 - 6월의 수출량은 1년 전보다 4%, 수입량은 8% 증가

□ **결과적으로 연초 중국 경제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이 대두**

-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일부 경제 분석가들 사이에서 올 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정부의 목표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됨
- 2012년 4사분기의 경기 반등은 일시적이었으며 정부의 정책적 개입이 없으면 올 4~6월의 악화 이후 또 다른 경기 침체로 전환될 전망 

Back to School Sales Already? Kids Get Ugly Reminder School Isn't Too Far off

* 기사출처: [TIME \(2013.07.10\)](#)

* 요약자: 윤민석 (yms8905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신학기, 소매업체

“미국 시장 내 신학기 시즌의 빠른 도래와 이에 따른 논란”



☐ 미국 소매업체들은 매출의 신장을 위해 어느 때보다 이르게 신학기 시즌을 앞당기고 있음

- 7월 4일 이전에 신학기를 이토록 강조하는 것은 근래에 없었던 일
- 월마트, 애플 등 많은 업체가 학기가 끝나자마자 다음 신학기 시즌을 내세운 할인판매를 진행하고 있음

□ 경제 위기가 지속되면서 해당 기업들은 신학기 시즌을 앞당김으로써 매출 증가 효과를 노림

- 신학기가 시작되는 것은 미래의 일이지만 기업들은 소비자들에게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인지시킴으로써 지금 즉시 구매하도록 유도함
- 부모가 자녀를 위해 신학기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것에 관대하다는 점을 이용하는 기업들의 전략이 증가하는 추세

□ 다수의 기업들에게 추수감사절-신년 시즌에 이어서 신학기 시즌은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시즌이 됨

- 신학기 시즌의 매출은 연간 84억 달러로 연간 580억 달러에 달하는 추수감사절-신년 시즌 매출보다는 적은 액수지만, 그 중요성은 크게 뒤지지 않음
- 특히 젊은 소비자층들을 공략하려는 기업은 신학기 시즌을 매우 중요하게 여김

□ 이처럼 신학기 시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쟁 또한 끊이지 않고 있음

- 8월 초에 학기가 시작되는 나라들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근거로 기업들의 신학기 시즌 앞당기기 전략을 옹호하는 주장이 있음
- 반대 측에서는 6월 말에 학기가 마치는 것이 보통인데 학기를 마치자마자 신학기 시즌을 대비하라고 하는 것은 기업들의 이기적


인 태도라고 지적

- 학생들이 학기와 학기 사이의 방학을 제대로 즐기지 못하게 하는 기업들의 편법은 비판 받아야 한다는 주장

□ 여러 비판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신학기 시즌은 기업에게 쉽게 포기할 수 없는 매출 증대의 기회로 여겨짐

-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는 신학기 시즌은 마치 전쟁과 같은 시기임
 - 신학기 시즌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위해 구매 의사 결정을 내리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별개의 시즌으로서 갖는 잠재력이 상당함
- 점차 시장에서 신학기 시즌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으며 이 기간의 길이 또한 그 치열함만큼 길어져 과열의 양상을 보이고 있음

□ 그러나, 신학기 시즌을 빨리 시작하는 것이 매출 증가로 이어진다는 것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이는 전문가도 존재

- 과열된 경쟁이 지나친 할인으로 이어져 결국 업계 전체의 이익을 감소시킬 수도 있음
- 또한, 판매 기간을 늘리는 것은 매출 증대가 아니라 판매 곡선을 더 오래도록 평평하게 유지하는 효과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 

Apple's Price-Fixing Guilt Won't Change the E-Book Market

* 기사출처: [Bloomberg Businessweek \(2013.07.10\)](#)

* 요약자: 전경령 (obooko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애플, 가격담합, 전자책

“애플의 가격담합 판결은 전자책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”

□ 올 봄, 미 법무부는 애플을 전자책 시장의 가격담합 주모자로 법원에 고소

- 담당판사는 애플이 담합의 주모자로서 출판사와 공모했다는 것으로 판결
- 2010년 담합이 실패한 것과는 달리, 이번에는 애플의 지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판결

□ 소비자 보호를 주장하는 측과 자유시장을 옹호하는 측이 재판의 결과에 주목하고 있지만, 판결이 책의 판매방식에 영향을 거의 끼치지 못할 것임이 자명

- 애플측과 미 법무부측은 각각 소비자 보호와 시장 자유경쟁의 보장이라는 논점을 내세우며 대립
- 한편, 판결은 출판사와 정부가 타협한 이후 규정을 변경한 사례에 대해서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

□ 재판의 구속력이 시장 전반으로 확장되지 않을 것이며, 애플에 대한 벌금형 이상으로 발휘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

- 담당판사는 출판사와 애플의 거래가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라 일찍이 행해져 오던 출판 업계의 관행이라고 지적
 - 이러한 관행에는 출판사가 가격을 정한 후 재판매업자가 수수료를 취하는 형식, 애플과 경쟁업체의 동시협상, 가격을 경쟁자만큼 낮추는 최혜국 조항도 포함됨
- 판결은 애플이 출판사와의 담합에서 이러한 거래의 측면을 이용한 점에 대해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, 업계 포괄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님


□ 거대 자본의 소유자인 애플은 이번 판결로 인해 어느 정도의 손실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, 큰 타격은 없을 전망

- 애플 입장에서는 납세 문제나 여타 비리에 관한 문제가 기소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, 판결의 비용부담을 감수할 만함
 - 그러나, 주 검찰총장의 소송으로 더 큰 벌금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남아 있어, 애플은 판사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예정
- 또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담합으로 인한 추가비용을 크게 인식하지 못함
 - 가격담합으로 소비자가 더 큰 비용을 내게 되었음에 불구하고 전차책이 종이책보다 훨씬 더 저렴하기 때문

□ 애플과 다른 기업은 전자책 시장경쟁에서 가장 큰 위협이 아마존닷컴이라 주장했지만,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판결을 내림

- 판사는 애플 재판의 중점이 아마존의 책 판매 방식에서 불공정 거래 관행이나 위법을 행했는지의 여부가 아님을 지적
 - 아마존닷컴 판매 방식의 불공정한 관행은 합법적인 소송단체나 민간의 소송에 의해서 판단될 사항
- 다른 기업의 독점금지법 위반사항은 애플의 위법행위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고, 소송청구에 대한 변명도 되지 못함을 명시

□ 애플은 전자책 시장에서 아마존닷컴을 견제하고 있으나, 출판사는 가장 큰 고객인 아마존닷컴을 고소하지 않을 것

- 애플은 아마존닷컴이 전자책 시장에서 독점행위를 한다고 주장하지만, 업계의 가장 큰 고객의 범죄를 입증할 출판사는 당분간 없을 것으로 추정됨
- 아마존닷컴 독점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

2 Central Banks Promise to Keep Rates Low

* 기사출처: [The New York Times \(2013.07.06\)](#)

* 요약자: 유안규 (yag7985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경기 부양책, 선제적 대응

“선제적 대응을 통한 경기부양을 약속한 ECB와 영국 중앙은행”

□ ECB(유럽중앙은행)와 영국 중앙은행은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을 발표

- 두 중앙은행은 선례가 없었던 방식인 '선제적 대응'을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할 계획을 발표함
 - 최근 두 중앙은행은 경제 불황에 대처할만한 정책적 수단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
- 발표의 주된 내용은 최근까지도 양적 완화 기조를 유지해 온 미국 연방 중앙은행의 행보와 유사

□ 두 중앙은행의 계획은 저금리 정책을 통한 경제 부양에 초점을 맞춤

- ECB의 총재인 마리오 드라기(Mario Draghi)는 앞으로 정책 금리를 무기한으로 현 수준 혹은 그 이하로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
 - 드라기 총재는 데이터 상으로 지금까지의 금리 방향이 하락세이며 앞으로 금리 수준이 더욱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함
- 영국 중앙은행 총재 또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할 것을 발표하였으며, 금리수준이 현재의 저금리를 탈피하여 상승할 것이라는 기대

는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함

- 그와 동시에 최근 양적 완화 축소를 시사한 FRB(미국 중앙은행)과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것, 즉 두 중앙은행은 여전히 경기부양에 힘을 쏟겠다는 것을 강조함

□ **두 중앙은행이 같은 행보를 보였다는 것과 양적 완화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의 긍정적인 관심이 집중됨**

- 다시 유로존 위기가 감지되는 시점에서 두 중앙은행이 투자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큼
- FTSE100 지수, 유로존의 우량주를 추종시킨 EURO Stoxx50지수는 각각 3.1%와 3%씩 상승
- 유로존의 수출을 촉진하는 유로화와 영국의 수출을 증진할 수 있는 파운드화의 평가절하가 이루어짐


□ **두 중앙은행이 이번 발표를 통해 처음으로 '선제적 대응' 방식을 선보였으며 이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**

- 두 은행은 정책금리를 0.5%로 고정하는 것 이외에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음
-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미리 언급하는 '선제적 대응' 방식은 지금까지 유로존 내에서 쓰이지 않았음
 - 반면 FRB(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)는 향후 정책방향에 대해 언질을 주는 '선제적 대응' 방식을 여러 번 사용해옴
- 런던 스피로 정부 전략의 CEO인 니콜라스 스피로는 "드라기가 언질을 통한 '선제적 대응'을 통해 아주 큰 성과를 거두었다"고 평가

□ ECB는 유로존을 유지하고 침체된 경제를 부양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옴

- ECB는 경기부양에 있어 FRB만큼 적극적이지는 않았지만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해옴
- ECB는 유로존의 해체에 대응하고 국채금리를 하락시키기 위해 노력했으며 이를 위해 국채를 무제한적으로 매입하겠다고 약속함

□ 영국 중앙은행과 미국 중앙은행 역시 경기 부양을 위한 정책들을 유지할 예정

- 영국 중앙은행은 경제회생프로그램과 금리 추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 발표
 - 아직은 회복 기조가 미약하고 경제 침체가 지속될 수 있지만, 곳곳에서 나타나는 회복의 조짐에 주목하고 있음
- FRB는 3억 불에 가까운 국채와 MBS를 축적해왔으며, 12월 이후로 8,500만 불 가량의 국채와 MBS를 매달 매입함
- 과거 FRB는 실업률이 6.5% 이상일 때에는 단기 정책금리를 계속 0% 상태로 유지하는 '제로 금리' 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음 

All Nations Collect Intelligence, Obama Says

* 기사출처: [CNN \(2013.07.02\)](#)

* 요약자: 김진수 (jinsuking@hanyang.ac.kr)

* 키워드: 스노든, NSA, 망명

“EU 내 미국 첩보활동의 폭로자, 스노든의 망명과 오바마의 대응”



□ 전직 CIA 직원 에드워드 스노든은 NSA(미 국가안보국)가 EU 사무실을 도청했다고 폭로함

- 스노든의 폭로에 의하면 NSA는 워싱턴과 뉴욕에 있는 EU 사무실을 도청함
- 또한 유럽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EU 건물 전산망에도 침투하였음을 폭로함
 - Justus Lipsius 건물(유럽위원회, EU 장관위원회, 유럽연합의 주요 의사결정과 입법의 본부 역할을 하는 곳)을 목표물로 삼음

□ 여러 매체에 따르면 NSA의 첩보 활동은 독일에서 가장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적대국뿐만 아니라 동맹국을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다고 함

-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(Der Spiegel)은 스노든의 서류를 인용하며 평균적으로 2000만 건의 통화내용과 1000만 건의 인터넷 연결 기록이 조사되었다고 보도
- 미국의 동맹국 중 독일에 대한 첩보 활동 수준이 가장 높았으며 이는 미국과 긴장 관계에 있는 중국, 이라크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슷한 수준
- 가디언지에 의하면 미국이 목표로 하는 첩보 대상국은 프랑스, 이탈리아, 그리스, 일본, 멕시코, 대한민국, 인도, 터키 등 9개국 이상

□ 스노든의 폭로를 통해 이와 같은 사실을 접한 유럽의 여러 정상들은 분노를 표출

- 프랑스 대통령 올랑드는 도청과 관련된 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미국과의 무역 및 교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
 - 미국과 EU의 대표임원들은 사건 발생 다음 주에 FTA를 논의하려고 계획했음
- 올랑드는 도청 관련 일이 테러 대비에는 필요하지만, EU를 상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주장

□ 이에 대해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는 도청과 같은 일은 흔히 있는 일이라고 반응

- 오바마는 미국의 첩보활동에 대해 항의하는 나라들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주장
 - 유럽 국가들도 오바마가 유럽 정상들과 어떠한 목적을 갖고 대화를 했는지 알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한다고 주장함
- 탄자니아의 뉴스 기자회견에서 오바마는 스노든과 관련된 사건에 대하여 아직은 모든 정보를 사실로 판단해서는 안되며, 정확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언급

□ 오바마는 미국의 첩보 활동이 타국에서 흔히 행해지는 수준이며 모든 정보는 동맹국과 공유되고 있음을 강조

- 오바마 정부가 정확한 사실을 얻게 되었을 때 동맹국들에 그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함
 - 미국과 유럽국가들이 협력관계이기 때문에 국가 간 공유되지 않는 정보는 거의 없다고 주장함
- 오바마는 자신을 정보의 최종 사용자라고 설명하면서, 본인도 유럽 각국의 수상이나 총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을 때 그들에게 전화한다고 말함

□ 한편 러시아 대통령 푸틴은 스노든이 러시아에 체류할 수 있도록 모스크바 공항의 문을 열어주며 미국을 압박


- 스노든은 현재 모스크바 공항에 머무르며 에콰도르 등 여러 국가에 망명 신청을 하는 중
- 푸틴은 스노든이 러시아에 더 체류하려면 그가 미국의 동맹국들에 해를 끼치는 일들을 중단해야 한다고 언급
 - 이전에 푸틴은 스노든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가 되든 공항을 떠나야 한다고 말함

- 그러나 미 국무부는 스노든이 러시아에서 망명할 곳을 찾고 있다는 정보 외에 이와 관련한 더 명확한 정보는 제공할 수 없다고 발표
 - 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러시아 망명 요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갖고 있지 않으며 스노든은 미국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주장
 - 오바마 또한 스노든이 말소된 여권으로 러시아에 갔으며 모스크바도 이 점을 고려하여 미국의 의사에 따라주기를 바램

□ 오바마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관련 국가들과 협력하고 있는 상황을 강조

- 양쪽 국가의 최고위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했음을 러시아에서 발표함
- 이전에 미국이 테러와 연관된 징후를 파악하기 위해 이메일들을 조사하고 통화기록까지 데이터베이스로 수집한 사실을 유럽과 공유함

□ 결과적으로 NSA 첩보 활동을 폭로한 스노든은 쫓겨 다니는 망명자가 되었고 미국은 망명을 허용하는 국가에 불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함

- 스노든은 미국에서 스파이 활동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에콰도르 등 중남미 국가에 망명 신청을 했으며 몇몇 국가로의 망명이 허가된 상태임
- 그러나 미국의 부통령은 스노든의 망명 신청을 받은 국가들에 이를 거절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, 망명을 받아들이는 국가에 불이익을 줄 것이라 엄포를 놓음 

FBI는 한양대 경영대학의 비상업적 지식봉사 동아리로, 본 보고서는 글로벌 경제/경영 이슈에 대한 교내 상호 학습을 위해 동아리 학생들에 의해 만들어졌습니다. 만약 외부에서 보고서를 요청하는 경우, 교외 지식봉사차원에서 무상으로 공유하고는 있으나 다른 상업적 용도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

한양대학교 경영대학

보고서 구독신청 및 변경 (fbi.hanyang@gmail.com)

Advisor: 이윤희,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(victory@hanyang.ac.kr)

Editor in Chief: 김주찬 (kjcjuchan@hanyang.ac.kr)

Associate Editor: 김시연 (rea1200@hanyang.ac.kr)

Copy Editor: 전주영 (junjy9111@hanyang.ac.kr), 박인철 (star11kers@hanyang.ac.kr)